

독서 활동 자료

푸른 사자 와니니

이현 장편동화 | 오윤화 그림 | 창비 2015



“사자는 사자답게, 와니니는 와니니답게!”
나다운 삶을 질문하고 탐구하게 하는 작품

등장인물의 이름에 담긴 뜻 알아보기

등장인물 이름 (스와힐리어)	우리말 뜻	이름 뜻에 대한 내 생각
와니니	왜?	
마디바	지도자	
아산테	고마워	
잠보	안녕?	
말라이카	천사	
무투	인간	
다다	자매	



사자의 법, 초원의 법

면	사자의 법
34	오직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라!
55	이미 대가를 치른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아.
147	사자는 모름지기 사자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법!
181	다 자란 수사자는 무리를 떠나야 해요. 그런 다음 제힘으로 새로운 무리를 찾아야 해요.
208	사자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족속이야.
209	품위 있는 동물은 죽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사자의 죽음이야.

면	초원의 법
14	살기 위한 사냥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
56	오늘 네가 할 일을 해. 그럼 내일이 올거야.
60	사람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원의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게 원칙이야.
109	산 채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126	힘 있는 동물은 약속을 지켜야 해요.
168	생명이 다하면 초원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되돌아온다고.
200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죠.

- ◆ 사자의 법과 초원의 법을 살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비슷한 점	다른 점

내가 지도자를 뽑는다면?

사자 무리	무리별 특징	사자 무리에 대한 내 생각은?
마디바 무리		
무투 무리		
와니니 무리		

◆ 내가 초원의 사자라면 어느 무리에 들어가 살고 싶은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푸른 사자 와니니 2 - 검은 땅의 주인

이현 장편동화 | 오윤화 그림 | 창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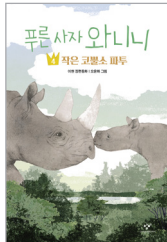
어린 사자 와니니의 모험을 그린 『푸른 사자 와니니』(2015)의 후속작이다. 와니니와 친구들이 자신들만의 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렸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을 버티고 큰불에도 굶하지 않고 성장해 가는 사자들의 모습이 흥미진진하다. 또한 작가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이번 이야기는 사실적이면서도 감동적이다.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펼쳐지는 활달한 기운의 이야기가 어린 이 독자들에게 시원한 독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푸른 사자 와니니 3 - 새로운 약속

이현 장편동화 | 오윤화 그림 | 창비 2021

와니니 무리를 위협하는 동물들이 연달아 검은 땅을 침범한다. 와니니가 마디바 무리에 있을 때 전해 들었던 '죽음의 병'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떠돌이 암사자 나펜테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진다. 와니니 무리와 하이에나 무리, 들개 무리, 셋 사이에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신경전은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 과연 와니니는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검은 땅을 지킬 수 있을까?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와니니 무리의 용감한 도전이 가슴 먹먹한 감동을 안겨 줄 것이다.



푸른 사자 와니니 4 - 작은 코뿔소 파투

이현 장편동화 | 오윤화 그림 | 창비 2022

외진 성격의 4권은 와니니 무리의 초원에 사는 한 살 난 수컷코뿔소 '파투'의 모험을 따라간다. 작은 몸집과 털 자란 뿔 때문에 코뿔소의 위엄도 뽐내기 어렵고, 엄마의 과도한 보호 탓에 친구도 사귀기 어려워 늘 외롭고 심심한 파투는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을 통해 호기심 많고 마음 따뜻한 모험가로 거듭난다. 연약하지만 용감하고, '나'와 다른 존재를 존중할 줄 아는 파투의 여행이 광활한 초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의 모습과 어우러지며 독자들의 시야를 넓힌다.



푸른 사자 와니니 5 - 초원의 바람

이현 장편동화 | 오윤화 그림 | 창비 2022

어느덧 다섯 살이 된 와니니와 바라바라 사이에서 세 마리의 아기 사자가 태어난다. 말라이카의 아기들과 와니니의 아기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고 와니니 무리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낸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한다. 슬픔에 빠진 와니니와 친구들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더욱 아프게 하고, 갈등 끝에 와니니는 한밤중 몰래 검은 땅을 떠난다. 와니니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찾기 위해 무리를 떠나 홀로 낯선 땅을 떠도는 와니니의 고독한 여정이 그려진다.